

# 동시대 안무 실천에서의 지식\*

이나현\*\*

- I. 서론
- II. 안무법에서의 권력과 지식
- III. 동시대 안무 실천에서의 지식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본 연구는 동시대 안무 실천에서 생성되고 활용되는 지식을 몸적 사유를 통해 발견하는 역동적 지식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이하 푸코)의 주체화(subjectivation)와 권력-지식(power-knowledge) 개념을 토대로 20세기 미국 모던 댄스에서 생산되고 활용된 테크닉 및 안무법과 차이를 보이는 동시대 안무의 지식을 읽어내고자 한다.

20세기 초 안무가마다의 무용 테크닉과 함께 안무법이 생겨나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서의 안무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과 그것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동시대 안무는 그 의미를 확장하며 작품의 생산과 관련된 매체, 공간, 감상 방식에서 변화를 보여준다(이나현, 2020). 그리고 기존의 안무법이라는 성문화된(codified) 지식은 동시대 안무에서 문제화의 대상이 되며 동시대 안무에서 요구되고 생산되는 지식도 변화하고 있다.

푸코는 지식을 경험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자 권력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강화되고 변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몸을 지식과 권력이 생산되고 작용하는 장소라고 본다. 안정된 지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문제화는 고립된 주체에 의한 이성적 사유가 아닌 경험 안에 놓인 몸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관점을 반영하여 동시대 안무가 문제화를 일으키는 몸적 사유에서 시작되고 재현을 통한 지식의 확인이 아닌 발견을 위한 연구적 특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역동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식'은 이론화된 안무 방식을 아는 것(knowing that)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앎(knowing how)뿐 아니라 안무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어진 환경 혹은 상황에서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으로서의 지식이며 닫힌 구조의 방법론과 구별된다. 또한 이분법적 사고

\* 이 논문은 202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연구원, ubin@jbnu.ac.kr

에서 이론적 지식에 근거한 몸의 행위능력과 구분하여 몸의 사유(bodily thinking)라는 개념을 통해 일원론적 시각에서 몸의 지적 사유 역량을 강조하고자 한다. 푸코에게 사유는 ‘문제’ 혹은 ‘문제화’와 연결된다(Foucault, 1997, p. 117).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몸의 사유는 ‘몸의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무용에서의 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무용의 학습과 실행에서의 지식을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측면에서 논의(고현정, 2018; 한혜리, 2019; Jackson, 2011)하거나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과 대조하여 감성적 지식(sensitive knowledge)으로 논의(Almeida, 2015)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안무의 예술적 연구로서의 측면을 다루며 안무 지식에 대해 논하는 벤 스파츠(Ben Spatz, 이하 스파츠), 보야나 스페이지(Bojana Cvejić, 이하 스페이지), 안나 페이크스(Anna Pakes, 이하 페이크스)의 연구를 토대로 한다. 세 학자의 논의는 모두 『동시대 안무, Contemporary choreography』(2018)에 수록되어 있는 글을 참고하였다. 스파츠의 『연구로서의 안무, Choreography as research』(2018)는 안무의 연구적 측면과 환경,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행위를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안무의 사회적 인식론(social epistemology) 측면을 논한다. 페이크스는 『무용제작하기를 통해 알기, Knowing through dance-making』(2018)에서 안무에서의 지식이 실천적 추론을 요구하는 실천적 지식이며 특히 자신에 대한 자각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페이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안무, Choreography that poses problems』(2018)는 기존의 안무에서 통용되어 온 지식인 재현적 표현, 유려한 몸적 움직임, 극장에서의 관객과의 소통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곧 동시대 안무이며 안무 과정에서도 일반화된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 세 논의는 동시대 안무의 연구적 측면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들에서 발견되는 동시대 안무의 인식적인 측면과 실천적 추론에서의 창의적 민감성, 기존 지식에의 문제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푸코의 지식의 개념을 권력 그리고 주체화 개념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모던 댄스에서 테크닉이라는 몸 지식과 규율 및 통제로서의 안무법의 형성에 대해 논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의 안무법이 보편적 지식으로 통용되지 않는 동시대 안무의 연구적 성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 안에서의 몸적 사유에 의한 발견과 고착된 정태적 지식과 대비되는 역동적 지식의 생산을 추구하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안무 과정에서 요구되고 생산되는 지식은 무엇이고 동시대 안무의 지식이 이전 시대의 안무에서 안무법과 테크닉으로 분류된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안무법과 테크닉이 통용되지 않는 동시대 안무 환경에서 안무의 과정과 안무의 가치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 II. 안무법에서의 권력과 지식

### 1. 지식, 권력, 주체화

일반적으로 지식(knowledge)은 정신적 탐구의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진리 혹은 사실을 아는 것의 의

미한다. 하지만 푸코에게 있어서 지식은 고립된 주체가 정신 내면의 탐구를 통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천으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김부용, 2009, p. 337). 그리고 지식은 권력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되고 강화된다. 푸코는 권력이 지식을 생성하고 지식이 권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권력-지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Foucault, 1997, p. 17).

권력과 지식이 생성되고 행사되는 곳은 몸이다. 몸은 “새로운 권력 기구들의 표적”이 되고 “새로운 지식의 대상”이 되는 장소이다(Foucault, 2016, p. 289). “지식과 통제”가 작동하는 “정치적 기술의 영역”이 바로 몸이다(Foucault, 2016, p. 253). 몸은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훈육되고 사용된다. 새로운 지식이 입혀지고 정해진 방식으로 조율되고 통제되는 것이다. 군인의 몸과 훈육의 결과로서의 절제된 움직임뿐 아니라 왕족의 몸가짐은 바로 이러한 몸에 작동하는 지식과 통제의 예시이다. 몸은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Foucault, 2016, p. 253). 그리고 몸이 습득하는 지식의 유용성과 효용성은 규율과 순종 안에서 더욱 강화된다.

몸을 배제한 고정되고 안정된 데카르트의 주체와는 대비되는 푸코의 철학에서의 주체화는 타자와의 관계라는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경험 안에서 몸은 “주체화가 시작되는 장소”이다(이정우, 1993, p. 169). 푸코의 신체화된 주체는 이론적 지식에 의해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 안에서 세계와 연루되며 문제화와 연결된다. 주어진 환경 혹은 경험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다르게 다루는 문제화는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다(Foucault, 1997, pp. 117-119). 문제화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던 행위가 안정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의 작동이 필요하고 반대로 규범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유 과정을 통해 기존의 행위 주체는 문제화되고 의심되고 불안정화되고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몸을 중심으로 주체화된 세력들은 대화를 통해 “대립적인 경기”를 하며 상호작용 한다(김부용, 2013, p. 24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은 화석화된 정태적 지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역동적 지식이 된다.

## 2. 권력-지식으로서의 안무법

모던 댄스의 이론가 존 마틴(John Martin, 이하 마틴)은 몸의 움직임은 “정신 혹은 감정적 경험의 첫 번째 결과”이며 몸은 곧 “생각의 거울”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Martin, 1965, p. 8) 언어보다 움직임이 드라마를 전달하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보았다(Martin, 1965, p. 96). 모던 댄스가 내세운 몸의 움직임과 내면(생각이나 감정)과의 자연적 연결은 움직임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고 움직임의 강조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추상적이고 양식화되어 발전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안무가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그레이엄 테크닉(Graham technique), 리몽 테크닉(Limon technique) 등의 무용 테크닉은 안무의 재료로 활용되는 지식의 하나가 되었다.

마틴은 테크닉이 특정 체계나 방법론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객에게 예술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Martin, 1965, pp. 62-64). 하지만 마틴의 이러한 설명과

는 다르게 모던 댄스의 테크닉들은 움직임의 방법론으로서 배제의 원리를 통해 닫힌 구조 속에서 힘을 얻고 성장하였다. 실천이 “살고 경험한 순간에 놓여진 것”이라면 테크닉은 “실천을 구조화”한 것으로, 일종의 지식이다(Spatz, 2018, p. 70). 모던 댄스에서 안무가라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테크닉이라는 지식을 생산하고 테크닉은 다시 안무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해 강화되는 권력-지식의 작동 원리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었다. 특정 테크닉으로 훈련된 무용수는 그렇지 않은 몸들과 구별되어 성장하였다. 무용수들의 특정 테크닉의 습득 과정은 순종과 훈련에 의한 것이다. 정치적 기술의 또 다른 형태인 훈련은 “성장과 관찰과 자격부여를 확고히” 한다(Foucault, 2016, p. 299). 이렇게 몸에 습득된 지식은 무용수가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부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시대 테크닉의 훈련을 담당할 무용 학교와 무용단의 연결은 곧 학교에서 훈육된, 자격이 부여된 무용수를 무용단에서 공급받는 체계였다.

테크닉의 양산과 더불어 1930년대 이전 “본능적으로 구성”(Humphrey, 1987, p. 16)되었던 무용에서 구성 이론이 발전하고 교육되었다. 음악적 전개 방식 혹은 시각적 구성 방법을 토대로 한 다양한 안무법의 등장은 안무가의 권위가 높아진 것과 함께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안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다. 험프리는 몸의 움직임을 다루는 이론의 부재를 무용가들의 “근육으로 생각하는” 비이성적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는다(Humphrey, 1987, p. 17). 20세기 중반까지도 안무법은 구성(composition)과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구성 규칙에 대해 적절한 지식이 없이 그것은 조작되거나 전개되거나 모양지워져서는 안된다”고 보았다(Horst & Russel 저, 김태원, 운영희 역, 1994, p. 23). 이러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이분법적 분리와 위계적 관계이며 안무가의 의도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몸의 도구적 활용이라 하겠다.

안무는 “법의 힘을 전시하고 현재화”하는 것이다(Lepecki, 2006, p. 24). 복종해야 하는 지시와 규범을 생산하는 것은 안무의 과업이다. 그것이 얼마나 느슨한지 조밀한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무는 몸의 지식의 생산과 통제에 의한 정치적 기술로 이해된다. 안무가의 권위 뒤에 숨겨진 권력은 무용수의 몸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작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게 된다. 무용에서 테크닉과 안무법은 안무가라는 초월적 주체에 의한 정태적 지식이자 무용가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주는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시기 이론적이고 정태적인 지식의 생산에 몰두한 것은 예술계에서의 무용예술의 위상을 위한 고군분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가변적 지식은 무용예술의 불완전성으로 인식되었기에 완벽한 재현을 위한 명령과 복종은 강화되었고 상황에 따른 생성과 변화에 의존하는 즉흥성은 용납되지 않았다.

### III. 동시대 안무 실천에서의 지식

#### 1. 몸적 사유와 민감성

마크 프랑코(Mark Franko, 이하 프랑코)는 안무 과정뿐 아니라 춤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활동에서 무용 표기법(notation)이 폭넓게 활용되지 못한 이유를 몸에서 찾는다(Franko, 2019, pp. 21-23). 안무

는 작품의 제작 혹은 그것의 완성 이상으로 “몸, 몸의 상태”와 더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업이다 (Franko, 2019, p. 21). 그런 이유에서 무용예술은 다른 어떤 시간 기반 예술보다 현장성, 실시간성이 강조 되어왔다. 이러한 몸은 단지 안무의 도구나 매체로 머물지 않는다. 또한 이분법의 논리에서 이성과 대척점으로 국한되지도 않는다. 동시대 안무에서 몸은 행위 안에서 주체로 등장한다.

기존의 지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곧 몸의 주체화에 의한 사유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몸적 사유는 정태적 지식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고 간다. 스페이지는 동시대 안무를 재현의 체제, 몸적 움직임의 강조, 극장에서의 관객과의 소통방식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즉 문제화(problematization)로 설명한다 (Cvejić, 2018, p. 56). 동시대 안무에 있어서 전통적 무용 테크닉과 춤의 유기적 체제는 문제화의 대상이다.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활용된 유려한 춤적 움직임, 움직임과 내면의 연결이라는 전제, 구성과 배치를 위해 작동하던 안무법이라는 지식은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즉, 기존의 안무법이라는 지식은 몸적 사유를 통해 경험 안에서 바깥 혹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변형되고 재인식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동시대 안무에서의 문제화를 위해 작동하게 되는 사유는 몸이 부정된 이성적 사유와 대비되는, 경험 안에서 바깥 혹은 타자와 상호작용하며 유발되는 몸적 사유일 것이다. “몸을 통해 주체를 다시 생각하는 것”(Lepecki, 2006, p. 5)이 안무의 과업이라면 동시대 안무는 혼육된(강요된) 움직임에 따른 주체성의 덧입혀짐 혹은 고정된 주체성에서 벗어나 과정 안에서 발견되는 움직임을 통한 주체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대 안무가 주체의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연구적 성격을 지닌다면 그것은 단지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사전 연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연구로서의 안무는 특정 안무법의 숙지와 실행 혹은 테크닉의 완성과는 별개로 안무의 과정에서의 발견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파츠, 스페이지, 페이크스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안무를 일종의 연구로 본다. 안무가 절대적 법칙의 실행에 의한 작품 제작이 아닌 실행 과정에서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연구적 측면을 지닌다면 그것은 움직임과 관계의 발견이며 그것을 조직하는 논리의 발견(추론)일 것이다. 레페키와 스페이지 등의 무용학자들이 안무와 운동성을 분리하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유려하게 연결되고 기교적이고 관습적인 무용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끊어지고 더듬거리고 느리고 일상적이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움직임을 포함한다. 고정된 정체성을 위한 유려한 움직임으로서의 춤을 위한 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임의 방향성을 외부에서 내부로, 과정 안에서의 발견으로 그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무에서의 움직임은 단지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지식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움직임”을 포함한다(Spatz, 2018, p. 69). 다시 말해 안무는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다루며 실천의 과정에서 포착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방식(how)”을 아는 것과 “사실(that)”을 아는 것은 상이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친다(Ryle, 2019, p. 34). 안무에서는 이 두 분야 즉, 안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인 안무법의 숙지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의성의 부분일 것이다. 발견은 거대한 지식의 구축을 의미하기보다는 창의성 즉, 새로움과 연결된다. 이러한 발견을 위한 실천에서 요구되는 것은 “창의적 민감성(creative sensitivity)”이다(Pakes, 2018, p. 19). 데카르트의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몸 자체의 예지적(intelligent) 능력을 지적(intellectual) 능력과 혼동할 수 있다(Ryle, 2019, pp. 52-64). 몸적 사유는 몸의 예지적 능력을 위해 몸의 민감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감각 작용에 대한 반응 능력과 경험 속에서의 체화된 인지, 움직임 안에서 요구되는 몸의 판단력과 상황(환경) 혹은 상호작용에서의 사고의 확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현대 뇌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느낌과 인식 작용의 긴밀한 연관성을 넘어 몸으로부터의 예지적 사유를 위해 몸은 민감성을 회복해야 한다. 안무적 상황에 놓인 몸은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도구로서의 숙련도 혹은 자신의 반복적 습관에 함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몸은 주체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고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적 이해와 몸의 숙련도만이 아니라 민감성이다. 동시대 안무는 연구로서의 과정에서 몸의 민감성에 의존하며 새로움을 향해 사유를 전개한다.

## 2. 역동적 지식

자전거 타거나 수영을 학습하듯 무용수로서 움직임을 조절하고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이 이론적 지식과는 별개로 행위 안에서 습득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 반면 안무 또한 행위 안에서 습득되는 지식이라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phronesis) 개념을 안무에 적용한다(Pakes, 2018, pp. 18-20).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식은 외부적 목표를 향한 행위보다는 과정 안에서 발휘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Aristotle, 2022, p. 225). “실천적 지식은 행위를 다룬다”(Aristotle, 2022, p. 231). 그리고 개별적 행위 안에서 필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숙고 즉,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Aristotle, 2022, p. 235).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실천적 지식이 가변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안무 또한 사람, 환경, 움직임, 관계 등 유동적인 대상을 다루는 행위라는 점에서 실천적 지식과 연결된다. 특정 안무법을 취하지 않는 동시대 안무는 보편적 원칙을 버리고 개별적 상황 속에서 ‘숙고’와 ‘탐구’를 토대로 진행된다. 개별적 상황은 가변적이고 일반화될 수 없다. 변화하는 순간적인 상황과 인간의 움직임은 연습 이전에 계획되고 계산되어 그대로 실행될 수 없다. 동시대 안무는 법칙의 적용에 의한 작품의 제작보다는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식의 생성에 의미를 둔다. 이는 몸에 의한 지식 생성으로, 경험에서의 몸의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이자 정신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의 몸의 산물이다. 몸을 배제한 정신적 주체가 아닌 몸을 통해 세계와 연루된 몸으로서의 주체는 그 안에서 “물질적(corporeal) 지식”을 얻는다(김부용, 2013, p. 243).

연구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 온 지식 위에서 시작된다. 스파츠는 “옛 것의 가장자리로부터의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과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안무의 인식론적 가치라고 말한다(Spatz, 2018, p. 72). 유려한 춤과 안무의 결속이든 춤과 음악의 관계이든 아니면 움직임의 표현적 측면이든 안무에서 정답으로 받아들여져 온 방법론들은 동시대 안무의 출발점이며 이전의 결론은 부정되고 새로운 발견으로 대체된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들 위에서 안무는 안무 과제와 함께 출발한다. 실천이 구조화되어 고착된 테크닉이라는 지식을 넘어 인식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옛것은 잊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토대로 자리한다.

스파츠는 자신이 대학에서 경험한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입문(introduction to dance)’ 수업이 갖는 안무와의 유사점을 설명한다(Spatz, 2018, pp. 70-73). 이 수업은 수업계획서 없이 매주

학생들의 상태에 반응하며 차이를 만드는 반복인 ‘이테레이션<sup>1)</sup>(iteration)’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강조한다. 이테레이션은 특정 테크닉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단순한 반복과 구별된다. 절대적인 목표를 향한 고정된 계획이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 상황에 반응하며 변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점은 동시대 안무가 역동적 지식을 추구하는 점과 맞닿아 있다. 안무에서 계획과 설계는 달성하기 위한 목표이기보다는 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변화되고 수정될 수밖에 없다. 계획서 없는 이테레이션의 강조는 안무가 계획적이거나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을 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미지의 영토로, 즉 인식적인 단계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안무의 실천에서 얻어지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테크닉을 향한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현 상황 속에서 적용되고 실험되어 발견되는 차이에 의한 실천적 지식 즉, 인식적인 것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대 안무에서 나타나는 협업 혹은 안무가와 무용수의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 또한 재현에 기반하는 고립된 주체를 중심으로 한 몸에 대한 권력으로서의 지식이 분산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무가와 무용수 혹은 무용수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에게 바깥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복종을 전제로 한 위계적 관계하에 침묵의, 혹은 일방적인 지시의 안무 과정이 아닌 대화 속에서 진행되는 안무 과정을 낳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동시대 안무에서 파괴되고 새롭게 생산되는 지식은 또 다른 테크닉의 이름으로 고착될 수 없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생성되는 역동적인 지식이다.

## IV. 결론

안무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몸 혹은 몸의 움직임은 안무에서 부수적이거나 더 나아가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본 연구는 테크닉과 안무법이라는 재현 논리에서 벗어난 동시대 안무에서의 몸적 사유의 중요성을 발견한다. 동시대 안무는 연구로서의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가변적 안무적 상황에 놓인 몸의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모던 댄스에서 통용되었던 안무법과 테크닉은 문제화와 탐구, 추론과 발견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모던 댄스의 권력-지식으로 강화된 무용 테크닉과 재현적 움직임을 위한 명령과 복종의 안무 기술은 과정에서의 발견을 위한 몸의 주체화에 의한 능동적 사유로 대체되었고 문제화의 대상이 되었다. 동시대 안무에서 지식은 끊임없이 바깥의 사유를 통해 변화하고 미지의 영토로 넘어가는 역동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역동적 지식 생성으로서의 안무 과정의 중심에 몸이 있다.

동시대 안무가 연구적 성격을 취하는 것은 위계적이며 재현적인 통치술로서의 근대적 안무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몸의 사유 능력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동시대 안무에서 몸은 이론적 지식의 재현을 위한 수단이기를 거부하며 과정 혹은 향유 안에서의 주체가 된다. 레페키가 드라마터그의 역할이 “지식과 얽이 아니라 부정확하지만 엄격한 방법론”과 연결되어야 한다(Lepecki, 2015; Spatz, 2018, p. 80에서 재인용)고 강조하는 것은 동시대 안무가 연구라는 이름 하에 또 다른 이론적 지식을 실천의 근거로 두고

1) ‘iteration’은 반복을 의미하지만 단순 반복의 의미와 구별되며 단계적 반복, 발전 과정에서의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이테레이션으로 표기하였다.

그 의미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 하겠다. 동시대 안무에서의 지식은 몸과 실천에 덧붙여진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천 자체에서 몸의 민감성 즉, 몸의 사유 능력에 의한 인식적 차원으로의 전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대 안무에서의 변화는 작품 제작, 스펙터클, 향유의 방식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 참고문헌

- Ryle, G.(2019). *마음의 개념*.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원저출판 1984).
- Aristotle(2022). *니코마코스 윤리학*. (박문재 역). 현대지성. (원저출판 1894).
- Foucault, M.(1993).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중원문화. (원저출판 1971).
- Foucault, M.(2016). *감시와 처벌:감옥의 탄생*. (오생근 역). 나남. (원저출판 1975).
- Horst, L. & Russel, C.(1994). *현대춤 형태론*. (김태원, 윤영희 역). 현대미학사. (원저출판 1961).
- Cvejić, B.(2018). Contemporary choreography: A critical reader. Butterworth, J. & Wildschut, L. (Ed.), *Choreography that poses problems*. (2nd ed, pp. 54-67). Routledge.
- Frank, M.(2019). *Choreographing discourses: A Mark Franko Reader* (Franko, M. & Nicifero, A. Ed.). Routledge.
- Foucault, M.(1997).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Rabinow, P.(Ed.). The new press.
- Humphrey, D.(1987). *The art of making dances*. Princeton Book Company.
- Almeida, M.(2015). Sensitive knowledge of dance. *Technoetic Arts: A Journal of Speculative Research*, 13(1), 45-55.
- Lepecki, A.(2006). *Exhausting dance: Performance and the politics of movement*. Routledge.
- Martin, J.(1965). *The modern dance*. Dance Horizons.
- Pakes, A.(2018). Contemporary choreography: A critical reader. Butterworth, J. & Wildschut, L. (Ed.), *Knowing through dance-making:Choreography, practical knowledge and practical-as-research*. (2nd ed, pp. 11-24). Routledge.
- Spatz, B.(2018). Contemporary choreography: A critical reader. Butterworth, J. & Wildschut, L. (Ed.), *Choreography as research: Iteration, object, context*. (2nd ed, pp. 68-83). Routledge.
- 고현정(2018). 체화된 인지와 몸지식 담론. *무용교육학회지*, 29(1), 103-117.
- 김부용(2009). 미셸 푸코 사회인식론의 정립을 가능성을 위한 시론. *철학사상*, 31, 337-373.
- 김부용(2013). 미셸 푸코의 경험과 지식. *철학논집*, 33, 229-259.
- 이나현(2020). 확장된 안무 개념에 대한 연구-윌리엄 포사이드의 ‘안무적 오브제’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79(3), 111-124.
- Jackson(2011). Dancing the Invisible: investigating embodied knowledge and improvisation in mature dance practice. *한국예술연구*, 4, 151-166.

논문투고일 2024. 11. 15.

심사일 2025. 02. 19.

심사완료일 2025. 03. 03.

## Knowledge in Contemporary Choreographic Practice

**Lee, Nahyun**

Associate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knowledge generated and utilized in contemporary choreographic practice as dynamic knowledge discovered through bodily thinking which requires creative sensitivity, based on Foucault's concepts of subjectivation and powerknowledge. To this end, it examines the knowledge of contemporary choreography as discussed in the works of Spatz, B., Cvejić, B., and Pakes, A., which treat choreography as epistemology. By reflecting on Foucault's perspective, this study discusses the knowledge of contemporary choreography as dynamic knowledge which is opposed to fixed techniques and choreographic methods in of the modern dance period and is produced through bodily thinking and creative sensitivity that problematizes existing knowledge to discover a new way of solving choreographic problems.

**Keywords:** Contemporary Choreography(동시대 안무), Knowledge(지식), Bodily Thinking(몸적 사유), Creative Sensitivity(창의적 민감성), Choreography-as-Research(연구로서의 안무)